

CJ제일제당 '프론티어 랩스 2기' 모집

CJ제일제당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론티어 랩스 2기'를 모집한다. 기존 식품 산업 관련 건강, 환경, 기술 분야뿐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센서 등 미래혁신 분야까지 모집영역을 확대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도 참여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참가 접수는 3월 4일 오후 6시까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여의도 IFC 인수 뒀어든 신세계

신세계, 통 큰 베풀...현대백과 유통대전 펼칠까

(더현대 서울)

공격적 M&A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시스 자산운용과 2차 본입찰 참여 확보 시 스타필드 입성 가능성 높아 입찰가 4조원...자금 조달 능력 관련

신세계가 서울 여의도 입성을 정조준한 가운데, 벌써부터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서울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라고 밝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이뤄 국내 리딩 유통 사업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스타필드 여의도 탄생하나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의 부동산 종합개발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이시스자산운용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를 위한 1차 본입찰에 이어 2차 본입찰에도 참여했다. 매각 대상은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IFC 빌딩 4개동과 복합쇼핑몰 ICF몰로 8만 5400㎡ 규모다. 4개동 중에는 글로벌 호텔 체인 힐튼의 최고급 브랜드 콘래드 호텔도 포함됐다. 입찰에는 ARA코리아 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마스텐투자운용·NH투자증권 컨소시엄, 코람코 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IFC몰을 스타



신세계가 이시스자산운용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를 위한 1, 2차 본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벌써부터 스타필드 여의도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복합쇼핑몰 IFC 몰 내부 전경.

필드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 이마트 여의도점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있지만, 복합쇼핑몰로 분류되는 스타필드는 없기 때문이다.

IFC몰 길 건너 파크원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은 백화점으로 분류되나 복합쇼핑몰에 더 가까운 형태인 만큼, 더현대 서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스타필드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도 우세하다. 또 콘래드호텔의 경우, 신세계의 조선호텔 브랜드로 바꿀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국 신세계가 유통과 호텔 노후를 지닌 만큼, 이번 인수합병 과정에서 IFC의 향후 비전을 제시할 때도 유리하다는 분

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IFC에 대한 신세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신세계가 IFC 확보 시 스타필드가 들어서는 것이 이상적이다. 더현대 서울과의 경쟁에서도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스타필드 여의도가 탄생한다면 인근 영등포역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여의도에 스타필드와 더현대 서울 등 서울 영등포구가 유통기업의 격전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금 조달 능력이 승부처될 듯

문제는 가격이다. 1차 입찰에서 IFC

의 매매가는 최대 4조3000억 원 안팎의 입찰가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딜이라는 점에서 자금 조달 능력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방식은 이시스자산운용이 매입하고 신세계는 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해 IFC의 중간지 플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세계가 지난해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구 SK 와이번스), 패션플랫폼 W컨셉을 인수하고, e커머스(전자상거래) G마켓글로벌(구 이베이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연이어 확보하면서 예전보다 자금 유동성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성수동 이마트 본사, 서울 마곡과 가양동 부지 등을 매각해 2조 원이 넘는 유동성도 확보한 만큼, 자금 조달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과감한 인수합병 행보에는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인식과 함께, 궁극적으로 '신세계 유니버스' 구축이라는 포부가 깔려 있다. 정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제2의 월마트나 제2의 아마존이 아닌 제1의 신세계가 목표"라며 "고객의 온·오프라인 모든 일상을 신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신세계 유니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100% 빚나간다"는 아이스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의 말을 인용하며 "실패해도 꾸준히 실천할 것"을 당부한 것도 이번 인수합병 실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정국 기자 jjay@donga.com

2025년 러시아 소치에 '롯데호텔' 생긴다 국내 업계 최초 해외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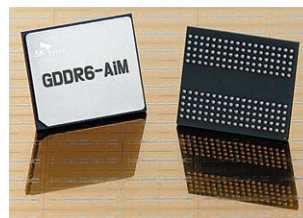
2025년 개장 예정인 롯데호텔 소치 조감도. 사진제공 | 롯데호텔

롯데호텔이 국내 호텔업계 최초로 러시아 건설기업인 메트로폴리스 그룹과 호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러시아 소치에 롯데호텔 이름을 단 5번째 호텔이 2025년 문을 연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호텔 소유주가 호텔을 직접 운영하면서 특정 호텔 브랜드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브랜드와 운영 스탠더드를 제공받는 형태다. 국내에 들어온 메리어트, 소피텔, 포시즌스, 인터컨티넨탈 등 유수의 글로벌 호텔 브랜드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롯데호텔측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사마라 등에서 4개의 5성급 호텔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계약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의 이름을 붙인 소치의 새 호텔은 메트로폴리스 그룹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호텔 및 주거 서비스 관리 전문 현지기업인 리프라이프 그룹이 맡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SK하이닉스, 차세대 메모리 'PIM' 개발 "데이터 저장 뿐 아니라 연산 기능까지"



SK하이닉스가 연산 기능을 갖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PIM'(Processing-In-Memory)을 개발했다. PIM은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 기능을 더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 정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저장 역할을 하고, 사람의 뇌와 같은 기능인 연산 기능은 비메모리반도체인 CPU(중앙처리장치)나 GPU(그래픽처리장치)가 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SK하이닉스는 이를 깨기 위해 연산도 할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 메모리'를 꾸준히 연구해왔고, 이번에 첫 결과물을 선보이게 됐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반도체 분야 학회인 '2022 ISSCC'에서 PIM 개발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술이 진화하면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에서 메모리반도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도 가능해질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PIM이 적용된 첫 제품으로 'GDDR6-AiM'(사진) 샘플을 개발했다. 초당 16Gbps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GDDR6 메모리에 연산 기능이 더해진 제품이다. 일반 D램 대신 이 제품을 CPU·GPU와 함께 탑재하면 특정 연산 속도는 최대 16배까지 빨라진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최근 SK텔레콤에서 분사한 AI 반도체 기업 사피온과 협력해 GDDR6-AiM과 AI 반도체를 결합한 기술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LG, LED 사이니지서 NFT 디지털아트 감상



LG전자는 LED 사이니지(사진)에 NFT(대체불가토 토큰) 디지털아트 플랫폼을 탑재한다. LG전자는 세계적 디지털아트 플랫폼 업체 블랙드브와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LED 사이니지에 블랙드브의 디지털아트 플랫폼을 탑재한다고 16일 밝혔다. 블랙드브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 고화질 디지털아트 감상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400명이 넘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확보하고 있다. LG 사이니지 고객들은 블랙드브의 전문 큐레이터가 선정한 조나단 맥케이브, 케네스 웨인, 메건 쉐, 프랑크 르페브르, 제이미 스콧 등 아티스트의 작품을 체험할 수 있다.

권철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韓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뽑은 '2022 올해의 차' 대상은...“기아 EV6 영예”

전기차 최초로 선정...제네시스 제쳐 전기 크로스오버 부문 등 3관왕 차지 독보적 디자인·성능으로 기자들 호평

기아의 첫 번째 전용전기차인 'EV6'가 자동차전문기자들이 뽑은 '2022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10년 이상 자동차 산업·정책 분야를 출입한 전문 기자로 구성된 사단법인인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시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22 대한민국 올해의 차' 시상식을 갖고 기아 'EV6'가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아 EV6는 2022 올해의 차 심사에서 총점 6116.25점을 얻어 제네시스 G90(6041.5점)을 근소한 차로 따돌리고 올해의 차 영예를 안았다.

'2022 대한민국 올해의 차'는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소속 회원 26명이 지난 1월 26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레이스웨이 서킷에서 ▲디자인 ▲퍼포먼스 ▲편의·안전 ▲경제성 ▲혁신성 등 5개 항목에 걸쳐 '실차테스트'를 거친 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15개 부문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EV6는 전기차로는 최초로 '올해의 차'를 수상한 데 이어 '올해의 전기 크로스오버' 부문과 '올해의 디자인' 부문을 동시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격히 재편되는 자동차 시장에서 EV6는 독보적인 디자인

과 성능을 앞세워 자동차전문기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기아 국내영업본부장 권혁호 부사장은 "친환경 자동차가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기아 EV6가 제네시스와 벤츠 등을 제치고 올해의 차를 차지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더 새로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인물'에는 한국 고객에 대한 AS를 강화하고, 한국시장에서 디젤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친환경차만을 투입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달성한 볼보자동차코리아의 이윤모 사장이 선정됐다. 이 사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 내년에는 올해의 전기 SUV 부문을 수상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2022 올해의 차 각 부문별 수상자는 ▲올해의 전기 세단'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S ▲올해의 내연기관 세단' 제네시스 G90 ▲올해의 전기 크로스오버' 기아 EV6 ▲올해의 내연기관 크로스오버' 현대자동차 캐스퍼 ▲올해의 전기 SUV' 제네시스 GV60 ▲올해의 내연기관 SUV' 기아 스포티지 ▲올해의 픽업' 쌍용자동차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칸 ▲올해의 MPV' 현대차 스타리아 ▲올해의 하이브리드' 기아 K8 하이브리드 ▲올해의 시타카' 현대차 캐스퍼 ▲올해의 럭셔리' 제네시스 G90 ▲올해의 퍼포먼스' 현대차 아반떼 N ▲올해의 디자인' 기아 EV6 등이 각각 뽑혔다.

원성길 기자 sereno@donga.com